

신행 단신

법륜 스님 세계 100회 강연 나선다

8월 26일~12월 18일, 유럽·북미·남미·동남아 등 순회

죽은즉설로 깨달음을 주는 법륜 스님이 해외순회 강연에 나선다.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8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유럽, 캐나다,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아시아지역에서 115회에 걸쳐 '법륜 스님의 세계순회' 강연을 개최한다. 정토회는 "이번 강연은 '2014 희망세상만들기'라는 주제로 해외의 대도시뿐 아니라 그동안 찾아가지 못했던 중소도시까지 확대해 많은 사람들과 더 가까이 찾아가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희망을 함께

찾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연은 선착순 무료강연이며 해외교민과 청년들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로 이루어진다. 또한 정토회는 현지에서 강연장을 찾고 홍보를 맡을 자원봉사자를 찾는다. 강연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정토회 홈페이지(www.jungto.org)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자원봉사 희망자는 전화나 이메일(jungtooverseas@g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 (1-240-786-7528) **이은 기자**

위빠사나 내 근기에 맞게 수행하자

위빠사나부터선원, 10월까지 집중수행 개체

위빠사나를 통한 심리치료를 하는 집중수행이 열린다. 위빠사나부터선원(선원장 김명권 법사)은 10월까지 문경 한산사에서 '위빠사나, 붓다호흡' 집중수행을 개최한다. 개인에 따른 초·중·고급으로 맞춤형 수행을 진행하는 부터선원은 8월 14~18일, 9월 4~10일, 10월 2~6일 세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초로 미얀마 비구계를 수계받은 김명권 법사의 지도로 위빠사나 붓다호흡을 배우게 되며 동대선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위숙디 선생이 사마타단식과 위빠사나 심리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사마타 단식수행은 1일 단식, 4~5일

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위빠사나를 오래 수행해도 선정을 얻지 못하거나 심신정화와 체질개선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위빠사나 심리프로그램은 스나의 정체보기, 스바라보기 등을 통해 위빠사나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위빠사나부터선원은 이밖에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불광산사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조계사 앞 두산위브 836호 열린 선원에서 사마타 심리프로그램과 순수 위빠사나 수행을 실시한다. 010-2779-7864 **이은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지도자 연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회장 진우)는 8월 23~24일 용인 문수산 법륜사에서 지도자 연수교육 및 정지순례를 개최한다. 법륜사에서는 정병조 금강대 총장의 특강이 진행되며 둘째날에는 안성 칠장사, 용인 와우정사, 남양주 봉선사 등을 참배한다. 참가비는 10만원

로 8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총동창회장 진우 스님은 "최근 불교센터 건립 등 불교대학원 동문들의 힘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이번 지도자 연수 교육과 순례가 불자 동문들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02)737-1053 **노덕현 기자**

'금강경' 일만 독송 일일법회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는 8월 25일 대웅전에서 '도반과 함께하는 <금강경> 일만 독송 일일법회' 인재를 봉행한다. 금강경 독송의 생활화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법회는 저녁예불 후 <금강경>

독송과 간화선 수행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오후6시부터 7시30분까지 100일 동안 진행하며 입재 후 100일마다 주지스님의 지도와 법문으로 회향식이 열린다. **이은 기자**

7만字 법화 석경 품은 사찰로 재탄생

서울 법화정사 증축 마치고 8월 24일 개원 법회

<법화경> 사경 수행으로 잘 알려진 서울 법화정사(회주 도림)가 <법화경> 석경 7만자를 품은 사경 수행 전문 도량으로 새 모습을 갖추고 재탄생한다. 서울 동대문 제기동에 위치한 법화정사는 1년여의 중창과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8월 24일 오전 10시 중창·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서울 법화정사가 1년여의 중창봉사를 통해 사경전문도량으로 탈바꿈했다. 현대적 외형과 더불어 도량의 외벽을 법화경 7만자 석경으로 장엄해 눈길을 끈다.

이번 법화정사 증축은 매년 늘어나는 사경 법화행자들에게 쾌적한 수행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실제 회주 도림 스님이 제주도에서 시작한 <법화경> 법회와 사경 등 전법 운동은 한라산 기슭에 평화통일불사리탑과 천안 구룡사 천불천탑, 서울 제기동 법화정사로 이어졌다. 현재에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에 분원과 지역별 수행 모임을 이루고 있다.

법화정사는 이번 중창으로 사경 전문 수행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췄다. 두동으로 나뉜 중창된 법화정사는 대지 860㎡, 연면적 4,134.09㎡에 본관 지하 2층 지상 9층, 별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를 자랑한다. 본관에는 지하에 발우공양간을 비롯해

법화경 사경 전문도량 위용 갖춰 연면적 4134㎡, 2개동으로 구성 법화경 석경으로 외벽 둘러 '장엄' "법화경 널리 전하는 계기 되길"

대웅보전, 사경법당, 극락보전, 법화보궁(성보박물관), 적멸보궁·진신사리탑, 승방, 영산화상 등이 들어섰으며, 별관은 '법화경' 사경수행과 교육관 등으로 사용된다.

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에는 '희평석경'의 예서체가 가장 어울린다"고 설명했다.

석경에 사용된 <법화경>도 눈길을 끈다. 조선조 세종대왕이 만든 '간경도감'에서 훈민정음으로 간행한 <법화경>을 담고 있어서다. 법화정사는 '간경도감' 간행 <법화경> 중 '여래수량품' '관세음보살보살품' '여래신력품'을 선별해 석경했다. 법화정사 회주 도림 스님은 "전국, 전세계 100만 법화행자들의 물러섬 없는 수행정진과 전법 원력으로 기도하고 사경해 '희평석경 7만자 법당'을 완성했다"면서 "<법화경>을 깊이 믿고 읽고 쓰고 널리 전하면 소원하는 바를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화(法華)란 대자대비한 부처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이 큰 지혜를 깨닫게 하고 불국정토의 꽃을 세상에 피운다는 뜻"이라며 "법화경을 항상 읽고 외우고 사경하면 길고 오묘한 진리의 세계가 마음에 피어나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불자들이 <법화경>을 부지런히 쓰고 읽고 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4일 개원법회는 삼귀의, 헌공기도, 부처님 세안식(미얀마 스님 집전), 감사패 수여, 도림 스님 인사말,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02)928-1331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禪으로 상담 심리치료 하는 워크숍 열린다

데이비드 브레이저 박사 초청, 8월 한달 간 세차례 걸쳐 진행

영국 불교수행지도자이자 심리치료사인 데이비드 브레이저(David Brazier)와 함께하는 여름 워크숍이 열린다.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와 한국불교상담학회, 불교상담개발원,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8월한달 간 3차례에 걸쳐 서울 법륜사에서 불교심리치료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선치료연구소 한국지부와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한국불교상담학회가 공동주관으로 마련됐다.

8월 11~15일에는 '가장 소중한 관계'를 주제로 치료자의 역할과 기능, 책임을 설명함과 동시에 치유 과정의 본질과 가치, 윤리, 역할, 기능, 방법의 문제를 다룬다.

8월 19~24일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선치료의 핵심-반야심경의 선치료적 이해'를 주제로 상담과 심리치료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로 구성됐다. 이론적 내용과 주제를 반야심경에서 착안해 공(空), 너머(바라볼), 지혜(반야), 오온, 무상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을 살피고, 강의와 토론, 질

의응답, 소규모 집단실습을 병행한다.

마지막 8월 26~28일에는 '선치료 지도자 과정'이 열리며 상담시연과 함께 분석을 주로 하게 되며, 기법, 실습, 피드백과 토론 등 실습을 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에 포함된 '가장 소중한 관계' 45시간, '선치료의 핵심' 54시간, '선치료 지도자 과정' 27시간을 수료하면 국제선치료연구소(ITZI: International Zen Therapy Institute)에서 발행하는 자격증(Diploma)이 발급된다.

이번 워크숍은 참가자 50명에 한하며 전체 일정동안 한국어로 통역된다.

한편 8월 16~17일 서울 마포 성림사에서 열리는 데이비드 브레이저 박사와 함께하는 '주말 선치료 코스'가 열린다.

브레이저 박사는 응용불교심리학으로서 선치료의 위치와 원리 및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당신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를 주제로 불교심리학 중심요소인 집착 문제를 다루게 되며 인간관계에 불교심리



2013년 8월 열린 산사워크숍에 초청된 브레이저 박사(사진 가운데)가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하고 있다.

학을 적용한 선치료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 현대 불교심리학의 개척자로 잘 알려진 브레이저 박사는 세계적인 불교상담전문가로 영국 아마미다 트러스트(Amida Trust) 창립했다.

브레이저 박사는 10대 후반,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초감 트루파 린포체에게 처음으로 불교를 접했으며, 영국 킵(Keele)대학교에서 '불교가 서양 심리치료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고 오랫동안 선불교의 가르침을 심리치료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연구하면서 유럽, 아프리카,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실천 불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국제선치료 연구소(ITZI)를 설립해 영국, 스페인, 벨기에,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등에서 불교심리학에 뿌리를 둔 심리치료와 불교심리학과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워크숍은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kabp@hanmail.net)로, 주말 선치료 코스는 불교상담개발원(jabi7378@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02)737-7378 **이은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망,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진성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율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8월 25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8월 26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8월 18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중급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